

5·18단체-특전사동지회 ‘힘하고 먼 화해의 길’

대국민 공동선언식 현장 가보니

140여 시민단체 “왜곡 멈춰라” 반대 속 “시대적 사명...” 강행 “화합위한 진정성 보여 줄 것” 모자결연 불발...향후 행보 주목

43년간의 반목의 역사를 정리하고 화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포용과 화해와 감사 대국민 공동선언식(공동선언식)’이 지역사회에 강한 반대 속에서 강행됐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회장 황일봉)와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회장 정성국),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 등은 19일 오전 11시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앞서 오전 10시께 140여개 광주 시민단체들은 5·18기념문화센터 앞에서 ‘오월 정신 지키기 범시민대회’를 펼쳤다. 이들은 “계엄군도 피해자”라는 역사 왜곡을 멈춰라, “대국민 공동선언을 폐기하라”, “사죄와 진상규명이 먼저” 등을 외치며 행사 저지에 나섰다.

특히 오월단체와 특전사동지회 측은 시민단체의 반발을 피하고자 오후 2시에 예정됐던 합동 참배를 오전 10시로 당겨 진행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는 ‘도둑 참배’라 비판하기도 했다. 행사 시간이다 가을수록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갈등이 고조됐지만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거센 반발 여론 속에서도 5·18



참배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 (사)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 일부 회원이 19일 광주 북구 운동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국립5·18민주묘지 제공

공법단체 2곳과 특전사동지회 17개 시·도 지부를 포함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선언식이 진행됐다.

양 단체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대동세상’을 기원했다.

황일봉 부상자회장은 “43년동안 우리들은 계엄군을 미워했다. 광주에 투입된 그 계엄군들은 국가의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인들이었다. 그 명령 한마디에 눈길도 옆으로 돌리지 못한 군인들이었다. 이제는 회환에 숨겨져 있던 군인들을 품어 줘야 할 때”라며 “43년 전 5·18 영령님들께서 소망한 ‘대동세상’을 향해 출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익봉 특전사동지회 총재는 “역지사지적인 이해와 관용, 문제해결에 먼저 다가가겠다는 용기와 결심이 필요했다”며 “과

거에 경험하고 느낀 아픈 기억과 군인이라는 입장으로 인해, 화해와 용서의 길에 함께 하기를 주저하시는 분들도 대동의 정신으로 미래를 향한 대열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 단체는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 공동선언문’을 읽으며 계엄군 또한 오랜 정신적·육체적 아픔으로 점철된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같은 아픔과 상처를 공유하고 치유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는 점에서 5대 행동강령을 통해 상호 협력의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5대 행동강령은 △5월 정신 상호 계승 협력 △국민 대통령 구현 △계엄군에 대한 용서와 화해·관련 법적 지원 △진신 교류 △국립5·18민주묘지, 국립현충원 참



반발 오월어머니집 회원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19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민주문에서 특전사동지회의 참배를 반대하는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민대회’를 갖고 묘역으로 향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배 정례화 등이다. 이날 임성록 특전사동지회 광주시지부 고문과 최초 5·18사망자 김경철씨의 어머니인 임근단 여사와의 모자결연식이 예정됐으나 임 여사가 불참하면서 행사에 차질이 빚어졌다.

임 고문은 “80년 5월 명령에 의해 벌어진 사태로 광주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점에 대해 항상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며 “광주에서 나고 자란 시민으로서 해묵은 감정을 풀기 위해 오래 전부터 노력해왔지만 아무도 해결하려는 이가 없었다. 어머니와의 모자결연을 계기로 서로가 용서하고 화해하는 좋은 결실을 맺고 싶었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임 고문은 화해를 반대하는 여론에 대해 “그간 5·18이 정치적 갈등으로 얼룩졌

다 보니 이번 행사를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있다. 이들에게도 꾸준히 화합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줄 것이다. 특히 현충원과 국립5·18민주묘지 합동참배 과정에서 특전사동지회 회원들의 가족까지 동행해서 오월 역사의 진실을 공유해나갈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5·18단체와 특전사동지회는 앞으로도 합동 참배나 봉사활동 등으로 교류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내달 중으로 광주 서구 거주 어르신들에게 국수나눔 봉사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특전사 창설기념일인 4월1일과 5·18민주화운동 주간인 5월21일에는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합동 참배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도둑 참배 규탄” 광주시민단체, 5·18묘지서 항의 집회

특전사동지회 일정 당겨 참배 “역사 왜곡·회귀하는 일” 반발 “시민·유가족 없인 화합 안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로자회가 19일 대한특전사동지회와 ‘민주묘지 참배·대국민 공동선언식’을 강행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광주시민사회·오월단체 관계자들이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정신 지키기 규탄 대회’를 개최했다.

광주전남추모연대·민주노총·농민회 등 140여개 지역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규탄 대회에서 “남몰래 한 특전사 5·18묘역 참배는 의미를 상실했다. 무엇이 떳떳하지 못해 ‘도둑 참배’를 자행하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특전사동지회가 두 공법단체와 함께 군사 작전 방불케하는 기습 참배를 했다”며 “80년 5월 이후 폭도·빨갱이 등의

누명을 벗기까지 15년의 세월이 걸렸다. 이들은 왜 역사를 왜곡하고 회귀하는 일을 벌이는 것인가”라며 반발했다.

앞서 특전사동지회와 두 공법단체 일부 관계자 등 25명은 이날 오후 ‘포용과 화해와 감사 5·18 민주화운동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마치고 묘역을 참배하겠다’는 당초 예고와 달리, 이날 오전 10시께 민주묘역 방문·참배 일정을 미리 마쳤다.

이를 두고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행사 이전에) 특전사들의 5·18 당시 진정성 있는 고백과 증언 등이 먼저 이뤄져야 했다. 결국 공법단체는 소리소문 없이 행사를 졸속 강행했다. 이는 결국 5·18을 이용한 것”이라며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들지 말라. 당시 계엄군들은 피해자가 아닌 후유증 환자일 뿐이다. 합의 없이 이 행사를 주도한 두 공법단체는 시민과 유족 앞에서 기필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법단체 소속 관계자들도 행사를 강행한 두 단체에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

김오진 부상자회 대의원은 “공법단체 소속 회원으로서 몹시 개탄스럽다. 유족

과 당사자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황일봉(부상자회)·정성국(공로자회) 회장은 무엇을 얻고자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인가. ‘광주의 오월’은 공법단체만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공동 선언식’ 참여 단체였으나 지난 14일 불참을 선언한 5·18 유족회 양재혁 회장은 “화합의 첫 단추”라는 대의적 측면은 공감한다. 그러나 과정이 잘못됐다”며 “광주시민들과 유가족 등의 동행없이 절대 완벽한 화합이 될 수 없다. 진정성 있는 자기고백과 진솔한 사과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제20회 호남마라톤

대회일시 2023년 4월16일(일) 오전7시~

대회장소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뒤 광장

대회코스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 나주 영산교

종 목 남·여 개인전 10km, 하프

참가비 30,000원

참가신청 호남마라톤 홈페이지 (www.호남마라톤.kr/) 이메일 419marathon@hanmail.net

접수마감 2023년 3월 31일(금) (선착순 500명)

참가문의 061) 375-1201

주최 全南日報

주관 전일엔컬스 마라톤세상

후원 전남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